

# 지계 생활화 강조한 청정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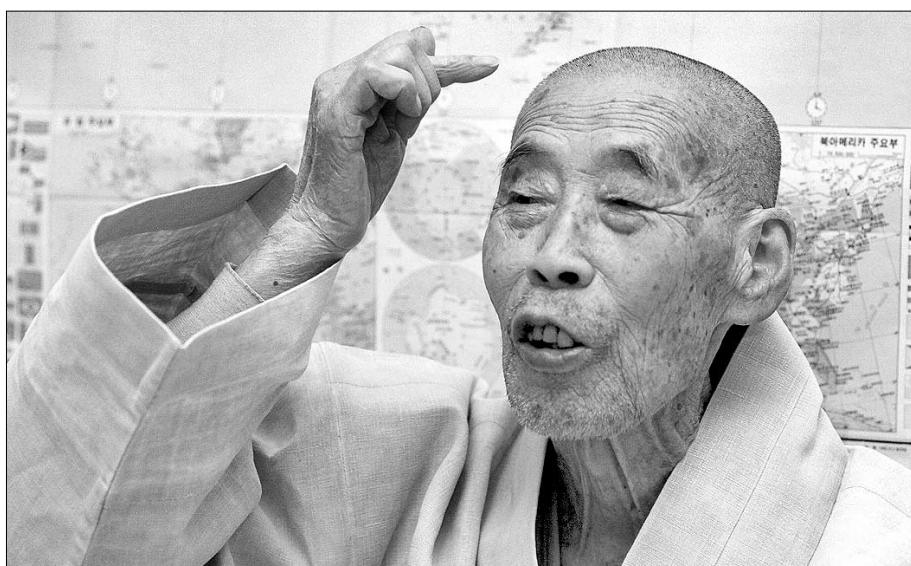
## 범룡 스님 행장

‘정법결백한 성품’ ‘수행의 실천가’ 범룡 대종사는 1914년 평남 맹산에서 한학자로 이름난 종주 박씨 집안의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스님은 불심이 돈독했던 선친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대장부가 되기 어려우며, 출가 인연을 맺기가 어렵고, 부처님 말씀을 만나기 어렵다’는 충고(四難得)에 따라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 한암 스님에게 화두 받고 평생 정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몸소 실천

이후 스님은 당시 이름난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을 찾아 오대산 상원사로 발길을 옮겼다. 한암 스님을 사봉하며 탄허 스님과 함께 《화엄경》 등을 배웠고, 한암 스님으로부터 무(無)자 화두를 받고 평생을 정진했다. 스님은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수심 안거를 성만했다. 예전에는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구월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묘향산 등 네 곳의 산에서 방부를 들인 수좌만 인정했다고 한다. 스님은 파계사 고승 스님과 더불어 네 곳 모두에서 참수 수행을 한 몇 안 되는 선승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스님은 오대산 중대에 주석하며 홀로 보공을 지키기도 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총을 들고 찾아왔지만 중대를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또 한국불교 정화 직후 흥천 수타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잊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5년 동안 밀려드는 고아



늘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범룡 스님. 스님은 12월 15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당신은 밀가루를 쫄 물에 삶아 몇 개를 띄운 것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스님은 <자경문> 중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할지이다. 애정을 끊고 부모를 떠나 온 법계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니, 만일 친하고 덜 친함이 있으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출가는 했지만 어찌 덕이 있겠는가’라는 대목을 좋아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깨닫는 그날까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못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을 살펴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계종 전제대화상을 역임한 스님은 생전 ‘불교가 울곧게 살아나려면 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

은 신라 때 자장 율사가 ‘내 차리리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계라는 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때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도 청정해진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노구를 이끌고 대구 동화사 비로암 바로 앞의 논밭에서 일하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 선사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던 스님. 어린 시절 꿈이 세계일주에서 방에 세계지도, 대한민국 전도를 나란히 걸어놓기도 했던 범룡 스님은, 12월 15일 오후 3시 27분 비로암에서 환기본처(還歸本處)했다.

남철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천성산 환경조사 파국 위기

## 철도공단 “사과 거부”-대책위 “남은 일정 거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가 8월 30일부터 진행해 온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을 스님이 숨는 이유는 환경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환경영향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조선일보>의 11월 24일자 보도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과를 거부했기 때

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12월 14일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최근 나온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 처장은 “지금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성산 대책위도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천성산 대책위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공단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단 측이 온갖 흑색선전을 통해 환경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간사는 또 “천성산 대책위 측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남은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봉헌 발언은 개인 종교자유 문제”

### 이명박 시장 또 망언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12월 12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봉헌 발언은 개인 종교자유 문제”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 할 때는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간섭하는 것은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러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분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2월 14일 성명을 발표해 “기어이 종교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며 이명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한편, 12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던 서울시 봉헌 관련 소송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로 연기됐다.

## 종교의 벽 넘어

### 아기예수 탄생 축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의 벽을 넘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화합의 장이 곳곳에서 열린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2월 21일 오후 7시 종교화합의 트리점등 법회를 연다.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트리점등법회는 케플송 합창과 풍물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서울 안국동 미안마선원은 12월 25일 오전 11시 미안마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날 문화행사에서는 미안마의 현악기 연주와 전통 인형극 상연, 한국의 소리를 배우는 시간 등이 마련된다.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과 신도들은 12월 24일 지산성당 미사에 참가해 아기 예수탄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대구 은적사도 12월 16일 룸비니 유지원에서 고산성당 정홍규 신부와 신도, 은적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열었다.

김원우 · 배지선 기자

## 달라이 라마 홈페이지 개설

달라이 라마가 공식 개인 홈페이지인 달라이 라마닷컴(www.dalailama.com)을 개설, 인터넷을 통해 불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티베트 뉴스사이트 <파울>이 12월 11일 보도했다.

10일 오픈한 달라이라마닷컴에는 그의 법회 스케줄, 법문내용, 관련 사진, 최근 뉴스, 자주하는 질문 등이 영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도 있어 전 세계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상희 기자

# 테마가 있어야 법회 뜬다

## 재가 눈높이 상승...주제별 법회에 불자 몰려

‘주제가 있어야 법회가 뜬다.’ 올해 성황리에 마친 불교계 법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수행열기가 ‘테마’란 웃을 입게 되면서 일어난 불교계의 한 흐름이다. 1회성 이벤트 행사, 일방적인 법문 전달, 질의응답 부재 등의 기존 법회 형식이 더 이상 눈높이가 높아진 재가불자들의 수행 욕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올 3월부터 총 10주간 열린 부산 범어사의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법회’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설선법회는 매주 법문 주제를 미리

선정,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구 동화사가 8월부터 3개월간 연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 수행법회’는 계율 관련 첫 대중법회라는 의미와 함께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불교계 인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10월부터 11주간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을 주제로 마련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테마기획법회’로서 불교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올 여름과 겨울안거에 맞춰 ‘간화선 이

해와 체험’ ‘금강경으로 본 간화선’을 주제로 3개월간 수행능을 개최했다.

대구 법왕사가 ‘화엄경과 법화경, 계율’을 주제로 2월부터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개최한 ‘경율론 삼장’ 백과사전법회와 순천 송광사가 ‘금강경’을 주제로 12월 2일부터 49일간 열고 있는 금강산립법회도 대표적인 테마기획법회로 재가불자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테마기획법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불교의 기본을 충실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들 계층의 관심분야를 불교경전, 수행법, 각종 사회문제 등의 주제별로 개발해 법회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 2005년 복지사업 회향 조계·진각종 송년행사

### 2005 조계종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2월 14일 하림각에서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범등 스님, 국회 정각회 이용희 회장, 열린우리당 이태희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주관 스님은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적 행보에 계속해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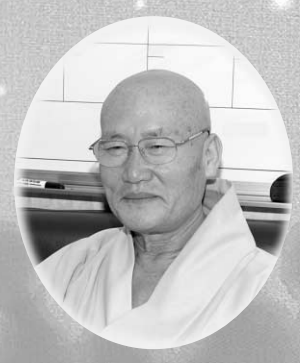
진각복지재단도 12월 12일 빅토리아 호텔에서 ‘회향의 밤’ 행사를 열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날 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 엔케이 인포메이션(N.K.Information)과 협약을 맺고 내년 ‘민족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 성도재일 기념 특별대법회

◆ 일시 : 불기2550(2006)년 1월 7일 (음,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 법 사 : 자광 큰스님 (김용사 회주)
- 찬조출연 : 니르바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도훈구 황옥경 살사대신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충남대학교 교수 불자회
- 후 원 : 동학사 승가대학, 대전백제불교대학, 대전시암연합회, 대전시청불자회, 도청불자회, 대전 5개구청불자회, 경찰불자회, 대전운전불자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자광스님 약력

- 1970년 팔공산 산복지장사 취공도봉선사를 은사로 득도 관용 탄허 구산 일우대종사와 각성강백으로부터 어록과 경전을 수학
- 1981년 구산선문 실상사 주지
- 1983년 봉암사 주지 역임
- 1989년 김릉사 주지, 제 8교구 직지사 주지.

현재 생령니승 실천본부 부이사장, 문경불교대학장 김릉사 회주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회원

세등선원 능한, 법문사 길상, 회전사 성옥, 중도선원 보현, 개심사 범일, 석림사 성공, 금강사 일성, 보현정사 명희, 정각사 정광, 영탑사 해일, 용화사 영진, 청화사 효경, 흥릉사 승호, 충효사 일권, 법성사 범성, 연화사 종실, 월인사 석산, 관음사 성연, 남화사 시연, 석가사 성현, 석왕사 보정, 도안사 성정, 극락사 경원, 복지관 보안.

그림 작가: 고현, 작품명: 초심만리